

## 01. 율곡의 이기론

‘이기론’이란 리(理)와 기(氣)에 대한 논의를 말한다. 율곡의 이기론으로는 주요한 개념으로 ‘기발이승(氣發理乘)’·‘이기지묘(理氣之妙)’·‘이통기국(理通氣局)’을 들 수 있다.

### 1) 기발이승

‘기발이승(氣發理乘, 기가 발하고 리는 탄다)’ 개념은 율곡이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리와 기가 상호 발한다는 설)을 부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 기가 발하고 리는 거기에 편승할 뿐이라는 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퇴계의 ‘이기호발설’은 리와 기 양자가 모두 발동할 수 있다고 본다. 율곡은 이에 반 대하여 기 한쪽만 발한다고 주장한다.

율곡의 ‘기발이승설’은 어떤 사물의 움직임에서 리와 기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발(發)’이란 발동(發動)을 의미한다. 발동이란 움직임(動)을 발한다, 혹은 촉발한다는 뜻이다. 즉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기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율곡은 기발이승에 대해서 태극의 동정(動靜)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명한다.

“기발이승이란 무엇인가? 음이 정(靜) 하고 양이 동(動) 하는 것은 기가 스스로 그런 것이 지 누가 시키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양이 동하면 리가 동에 타는 것이지 리 자체가 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자가 말하기를 태극은 본연의 묘(妙)이요, 동정(動靜)은 타는(乘) 바의 기틀(機)이라 하였다. 음이 정하고 양이 동하는 것은 그 기가 스스로 그러한 것인데, 음이 정하고 양이 동하는 까닭은 리이다.”(『답성호원』)

기는 스스로 동정을 일으키는 반면에 리는 거기에 승(乘), 즉 올라탄다는 것이다. 이것은 리의 수동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움직이는 기에 편승한다는 의미이다. 즉 움직이는 기와 움직이지 않는 리를 표현하는 말이다. 자연 세계에서 이렇게 모든 존재는 기발이승의 결과, 움직이고 변화하고 운행한다는 것이다.

리는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율곡은 그 존재가치를 경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기가 없으면 발동(發) 할 수 없고, 리가 없으면 발동할 이유가 없다(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율곡전서』, 『답성호원』)라고 하여 리는 스스로 발동하지는 않지만 기가 발동하는 원인이 되고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다만 리 혼자 발동할 수 있다는 주리론적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다. 그러므로 율곡의 이기론을 ‘주기론’이나 ‘주리론’의 어느 한쪽으로부터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홍균은 율곡을 이기 이원론자로 평가하고, 정주(程朱) 철학의 주리적 경향을 계승한 퇴계와 달린 율곡은 “정주 철학의 주리적 경향을 극복하고 이기 이원적 사유를 가지고 본체론, 인성론에 일관된 이기지묘의 변증법적 사유 구조를 확립”(이홍균, 448쪽) 하였다고 평가했다.

## 2) 이기지묘

앞에서 율곡의 ‘이통기국’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율곡은 이러한 ‘이통기국’의 상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기지묘(理氣之妙, 리와 기의 묘함)’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리는 기의 주재(主宰)이고 기는 리가 타는 것이니(氣者, 理之所乘也), 리가 아니면 기가 근거할 데가 없고 기가 아니면 리가 의지할 데가 없다.(夫理者, 氣之主宰也。氣者, 理之所乘也。)”(『율곡전서』, 「답성호원」)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기지묘’의 관계를 설명했다.

“리와 기는 이미 두 물건이 아니요 또 한 물건도 아니다. 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인 면서 둘인 것이요, 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와 기가 비록 서로 떠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묘합(妙合)한 가운데 리는 따로 리이고 기는 따로 기여서 서로 뒤섞이지 않으므로 한 물건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비록 리는 따로 리이고 기는 따로 기라 하더라도 한데 붙어 간격이 없어서 선후(先後)가 없고 이합(離合)이 없어 두 물건이 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물건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非理則氣無所根柢。非氣則理無所依著。既非二物。又非一物。非一物。故一而二。非二物。故二而一也。非一物者。何謂也。理氣雖相離不得。而妙合之中。理自理氣自氣。不相挾雜。故非一物也。非二物者。何謂也。雖曰理自理氣自氣。而渾淪無間。無先後無離合。不見其爲二物。故非二物也。是故。動靜無端。陰陽無始。理無始。故氣亦無始也。)”(『율곡전서』, 「답성호원」)

‘이기지묘’란 리와 기가 묘한 조화를 이룬 모습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리와 기는 불상리(不相離), 즉 서로 떠나지 않는 관계이며, 또 그것은 불상잡(不相雜), 즉 서로 섞이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며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리와 기 이 두 가지 존재가 두 개가 아니면서 하나가 아닌 것으로 묘한 합(妙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율곡의 ‘이기지묘론’이다.

『성학집요』(수기편)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이 신에게, “리와 기는 한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라고 하여, 신이 대답하기를, “그 전 사람들의 해석을 참고한다면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이와 기는 혼연히 간격이 없어서 원래부터 서로 뗄 수 없으니, 두 가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자가 말하기를, ‘기(器)도 도(道)요, 도도 기이다.’ 하였다. 비록 서로 뗄 수는 없더라도 혼연한 가운데서 서로 섞여 있지 않으니 한 가지라고 지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자가 말하기를, ‘리는 리요, 기는 기이니, 서로 섞여 있지 않다.’ 하였다.” 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말을 합하여 음미하고 사색한다면, 이기의 묘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有問於臣者曰。理氣是一物。是二物。臣答曰。考諸前訓。則一而二。二而一者也。理氣渾然無間。元不相離。不可指爲二物。故程子曰。器亦道。道亦器。雖不相離。而渾然之中。實不相雜。不可指爲一物。故朱子曰。理自理。氣自氣。不相挾雜。合二說而玩索。則理氣之妙。庶乎見之矣。)”

리와 기는 서로 간의 간격이 없어서 뗄 수 없으니 둘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서로 뗄 수는 없더라도 서로 섞여 있지 않으니 한 가지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같이 있으면서 각기 다른 성격이나 역할이 다름을 설명한 것이다.

율곡 이전에 퇴계 이황은 리를 특히 중시했으며, 화담 서경덕은 기를 더 중시했다. 퇴계의 경우는 기를 리의 하위개념으로 보았으며, 반면에 화담의 경우는 기를 더 높이 보고 리를 경시하였다. 이 두 사람과 달리 율곡은 리와 기를 똑같이 대등하게 중시했는데 이것이 이기지묘의 이기론이다.

이러한 ‘이기지묘’의 개념은 율곡이 현실 세계를 주목한 결과 제시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 황준연은 주자의 이기론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희의 …… 리 개념은 물질세계에 앞서 존재하며, 세계 존재의 1차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며, 또한 일종의 ‘절대정신’이다. 현상의 물질세계는 2차적이며 파생적인 것으로서 여기에 비로소 기의 개념이 나온다. 율곡은 이와 같은 ‘리’ 개념의 ‘객관 정신’에는 찬성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상의 이야기일 뿐 현실의 세계에서는 ‘리’와 ‘기’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그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이 바로 율곡의 ‘이기지묘’이다.”(황준연, 88쪽)

주자가 현실 세계 안에 담긴 리만을 주목하여 그것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모종의 객관적인 정신을 가정한 관념론적 유심 주의에 경도되었다고 한다면 율곡은 철저하게 현실에 주목하여 이기론을 전개한 것인데 그 핵심 개념이 ‘이기지묘’라고 할 수 있다.

### 3) 이통기국

율곡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일분수(理一分殊)’ 개념을 ‘이통기국(理通氣局)’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이일분수’란 ‘리는 하나인데 나누어져서 다르다.’는 뜻이다.

“리는 무형이지만 기는 형체가 있다. 그러므로 리는 통(通) 하지만 기는 국한(局) 된다. 그러므로 기가 발동하면 리가 거기에 올라타는 것이다. 형체도 없고 행위도 없는 것, 그러면서 형체가 있고 행위가 있는 것의 주인은 리이다. 형체가 있고 행위가 있으면서 형태도 없고 행위도 없는 것의 그릇이 되는 것은 기이다.(理無形而氣有形。故理通而氣局 理無爲而氣有爲。故氣發而理乘。無形無爲，而爲有形有爲之主者，理也。有形有爲，而爲無形無爲之器者，氣也。)”(『성학집요』 수기편)

리는 무형이기 때문에 널리 통하며, 기는 유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제한성을 갖는다. 율곡은 그것을 ‘국(局)’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리에는 본말도 없고 선후도 없다. 본말과 선후가 없기 때문에 리는 기의 유행에 편승하여 길고 짧음이 들쭉날쭉하여 가지런하지 않지만 그 본연의 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기가 편벽되면 리도 또한 편벽된다. 편벽되는 것은 리가 아니라 기이다. 기가 완전하면 리도 또한 완전하다. 완전한 것을 리가 아니라 기이다.”(『율곡전서』, 「답성호원」)

‘이통기국’에서 통(通)은 통한다, 보편적이라는 말이다. 국(局)은 국한된다, 한계가 있다, 편벽되다는 뜻이다. 리는 세상에 널리 두루두루 통한다는 말이며, 국은 세상에 널리 통하지 않는 것, 즉 어느 한 곳, 혹은 어떤 하나의 상황에서만 통하는 국한성을 가졌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보편성을 가졌지만, 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국한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통기국’의 설명에 따르면, 기가 서로서로 다른데도 그 근본이 하나일 수 있는 것은 리의 두루 포함, 즉 보편성 때문이며, 리가 사실은 하나인데도 만 가지로 다를 수 있는 것은 기의 국한성 때문이다. 이리하여 변화하고 제한적인 기 가운데에서 항상 보편적인 리가 존재하는 것은 리와 기의 이러한 ‘이통기국’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율곡은 만물의 보편성과 차별성을 ‘이통기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은 율곡이 최초로 창안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성리학에서는 이일분수라고 개념으로 설명되었던 것이다. 다만, 율곡은 ‘이통기국’을 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낸 설명 방식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다. 그는 혹시 자신의 독서가 많지 않아 기왕에 누가 했던 말을 못 보았을 수도 있으나 스스로 이해하고 창안한 것이라고 흐뭇하게 여겼다.(『율곡전서』, 「답성호원」)

황의동은 율곡의 ‘이통기국’을 율곡 성리학의 백미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통기국’의 철학적 의미는 먼저 개체의 자존(自存)과 전체의 공존(共存)이 상생하는 데 있다. 이통(理通)의 관점에서는 전체의 공존이 중요하지만, 기국(氣局)의 관점에서는 개체의 자존도 중요하다. 이처럼 개체와 전체, 자존과 공존의 상생을 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통기국’은 인성의 측면에서 기국성(氣局性)을 극복하여 이통성(理通性)을 회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이통성으로서의 인성은 평등하고 선하지만, 기국성으로서의 인성은 천차만별로 다르다. 여기서 선한 본성을 향한 기질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기국성의 극복이다.”(황의동, 299쪽.)

‘이통기국’을 천하에 보편적인 이통성과 한쪽에 치우친 기국성으로 나누어 기국성의 극복을 위해서 ‘선한 본성을 향한 기질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율곡 이기론의 철학적 의미라는 것이다.

결국 율곡은 이러한 이기론을 제창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가? 일본학자 다카하시 도오루도 황의동과 같이 ‘기질의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율곡 철학의 바탕에 ‘기질의 변화’라는 명제가 깔려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율곡의 이기론은) 현실의 구체적인 세계 내지 사물 존재의 실태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시점에서 입론 한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면 리 내지 태극은 불가시적인 형이상자(形而上者)이다. 그 작용은 어떻게 하더라도 볼 수 없다. 운동하고 있는 것은 음양 이기의 변화 생성의 활동뿐이다. 그래서 그는 리의 성격을 ‘무위(無爲)·무형(無形)’이라고 하고 또 기를 ‘유형(有形)·유위(有爲)’라고 하여 후자의 현실적 우위성을 강조하였다. (중략) 그의 목전의 최대 관심은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의 기를, 성현의 가르침에 의하여 검

속하여 그 ‘기의 본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다카하시, 203쪽)

이러한 설명을 염두에 두고 울곡의 이기론을 되돌아보면, 울곡의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이 바로 그의 이기론에서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